

중국의 노사관계는 전환점에 와 있는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세계경제 제2위 등극은 그동안 2위를 차지했던 일본과는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크게 다르다. 중국은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세계 초일류 강대국이라는 유일한 지위를 누리 왔던 미국에 정치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아래에서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 의존적인 수출 중심의 경제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동아시아 국제분업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권으로 깊숙이 편입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며 풍요를 구가하던 자유시장경제의 위력이 금융위기 앞에 추락했다면, 중국은 철도, 고속도로, 중서부 대개발사업 등 사회 인프라에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부족한 해외수요를 대체하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세계적인 경제위기 딛고 일어섰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 중국이 2010년 들어 전례없이 빠르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 특히 노동 분야에서의 변화와 개혁에 직면해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이미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 부족이 동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5월에 터져 나온 혼다자동차 부품회사의 장기파업 및 다른 공장으로의 확산, 82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한 대만계 위탁생산전문 전자업체인 폭스콘(Foxconn)의 억압과 통제적인 현장질서 속에 젊은 농민공들의 잇단 자살로 시작된 노동운동의

변화와 빠르게 파급된 임금인상은 중국 노사관계, 노동시장뿐 아니라 중국의 성장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과 6월 중국 언론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혼다자동차 부품회사의 파업, 폭스콘의 잇단 자살사건으로 촉발될 중국의 노사관계는 과연 전환점을 맞고 있는가? 이와 더불어 중국의 노동시장도 그동안의 노동력 공급 과잉에서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면서 소위 루이스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가? 이번 파업 사태는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바뀐 노동시장의 상황 아래에서 구세대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고, 더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핸드폰과 전자메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소통에 능통한 신세대 농민공과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작업장에서 기업들의 높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노동체제를 언제까지 참아낼 것인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 공회(노동조합)는 저임금의 통제적 작업질서 유지에 협조하는 대가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유노조 사업장에서 모든 직원들의 임금 2%를 세금처럼 공제하여 넘겨받는 재정적 안전성을 보장받아 안락을 누려 왔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중국 공회가 혼다자동차 부품회사의 파업과 폭스콘 노동자들의 죽음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해결능력도 없는 공식적 노동자대표 제도로서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를 노동자들과 사회에 던지고 있다. 중국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허용되고 단체교섭이 적극 추진되며,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채널들이 제도화되고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저임금, 불균형 성장모델 또한 중요한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혼다자동차를 비롯한 잇단 파업, 노동공급이 부족한 노동시장 상황 등으로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 20% 가까운 임금인상, 15~20%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를 지금 당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중국 경제가 중요한 전환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런 전환 국면이 한국의 1987년과 같이 정치적 민주화, 노동자들의 파업 폭발, 노조의 교섭력 대폭 강화와 같은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LI**